

# 8시 15분에 멈춘 시계

- 히로시마 -



니카와 겐고 씨(당시 59세)는 시 중심부로 건물 소개(疎開)작업을 위해 이동하던 도중에 피폭. 오른쪽 어깨에서 등과 머리 부분에 큰 화상을 입어 8월 22일에 사망. 이 시계는 고인이 언제나 지참하고 다니던 것으로서 아들이 기증했다.

폭발지점에서의 거리 / 1,600m

니카와 가즈오 씨 기증 / 히로시마 평화기념 자료관 제공